

이혼가정 아동의 적응을 위한 부모교육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성 정 현*

I. 서론

본 연구는 부모의 이혼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과 아동의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살펴보고 그 중 부모의 자녀양육을 중심으로 이혼가정 아동의 적응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목적이 있다.¹⁾

이와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한 것은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이혼은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고 그로 인해 이혼가정의 자녀 또한 매우 급속히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재판이혼을 대상으로 분석한 사법연감(2000)에 따르면, 이혼당시 미성년 자녀가 있는 상태에서 이혼하는 경우가 1995년 23,692건에서 1996년 23,080건, 1997년 24,809건, 1998년 26,815건, 1999년 29,565건으로 전체 이혼인구의 증가와 함께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이혼하는 부부의 약 90% 이상이 자녀가 있는 상태에서 이혼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과거의 자녀 때문에 이혼하지 못하는 현상들이 이미 사라진지 오래되었고 그 결과 이혼으로 인한 경제적, 사회적 문제뿐만 아니라 가족적, 대인관계상의 문제 또한 표면화될 상황에 이르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혼가정의 아동들을 위한 원조방법이나 실질적인 프로그램이 전무하며, 이와 같은 이유로 대

* 협성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전임강사

1) 본 발표문에서는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검증한 내용을 담지 못하고, 프로그램 개발의 전단계로서 문헌연구에 기초하여 프로그램을 제시하는데 머물렀음.

부분의 사회복지기관에서도 이혼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부모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실정이다.

아직도 전통적인 가족주의를 지향하고 있는 우리사회에서 이혼은 '해체된 가정'이라는 용어와 동일시되고 있다. 이것은 아이들이 부모의 이혼으로 가족을 잃게 되었음을 의미할 뿐 아니라 자녀들에게 다양한 사회적 가치와 규범을 가르치고 성공적인 성인으로 성장하도록 필요한 기술과 자원을 개발할 수 있도록 원조하는 부모의 역할이 해체되었음을 의미한다. 가족구조의 변화로 인한 부모역할에서의 과부담은 이혼당사자들의 심리사회적 문제뿐만 아니라 자녀와 관련된 문제들에도 영향을 미쳐서 실증적인 연구결과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는 문제로 지적될 정도이다(방선옥,1992; 한경혜, 1993).

아동기에 경험하는 부모의 이혼은 아동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이혼가정의 아동은 부모의 이혼으로 인해 긴장감과 감정처리문제, 생활의 변화, 책임감의 증대 등에서 비롯되는 심각한 스트레스를 경험한다. 또한 학업성적의 하락과 함께 분노나 공격성, 후퇴, 억압, 죄의식, 대인관계문제, 자아개념 저하, 비사회적 행동 등을 경험하게 되며, 수많은 상실감과 대인관계에서의 실패감, 새로운 가족으로의 전이에서의 어려움을 경험한다(Wallerstein & Kelly, 1980). Wallerstein(1984)에 따르면, 이혼을 경험한 아이들의 30%는 성인이 되어서도 부모의 이혼을 자신의 삶의 핵심적인 문제로 생각하고 있으며, 두려움과 심각한 외로움을 느끼고, 또 50%는 부모의 재결합에 대한 환상에 놀려있다고 할 정도로 이혼의 영향은 심각하고 때로 장기적이다. 또 Kalter(1977)에 의하면, 부모의 이혼을 경험하는 아동이 일반가정의 아동보다 정신과진료를 받는 비율이 2배 이상 높으며, 반사회적 비행행동이나 부모에 대한 공격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아동의 공격성이 높아지는 것은 부모의 양육기술이 약화된데 그 원인이 있다(Hetherington,1979; Hetherington, Cox and Cox,1977). 양육권을 가진 부모가 아동양육기술에 대한 자신감을 상실하거나 실제적인 기술이 부족해지면서 아동은 외적통제가 부족함을 인식하게 되고 이것이 높은 수준의 아동공격성을 초래하게 되는 것이다(Stolberg et al, 1987). 또 부모가 외적 통제의 중요한 원천을 상실하여 능력이 감소되면 이것은 아동의 내적통제의 획득을 방해하게 되어 남자아이 경우 반항적이고 말을 듣지 않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Olweus(1980)은 강력하고 단정적인 훈육방법이 아동의 공격적 행동의 발달과 유의미한 관계가 있다고 하였다. 또 정현숙(1993)은 이혼후 부모의 지원, 특히 양육부모와의 개방적인 대화가 아동의 적응을 예측하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하였다.

이혼현상에 비해 이혼에 대한 인식이 지체되어 있는 사회문화적 환경속에서 이혼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을 매개하는 요인으로서 부모양육의 기술에 대한 강조는 특히 중요하다. 그것은

결혼의 해체 자체보다는 이혼이후 계속되는 사건들이 아동의 적응문제와 관련되며 이중 부모의 자녀양육과 관련된 지식, 기술, 일관성, 그리고 부모간의 갈등정도 등은 아동의 적응을 예측할 수 있는 좋은 지표가 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혼 이후 아동들이 경험하는 문제들을 부모가 이해할 수 있도록 원조하고 그 지식과 이해를 바탕으로 한부모로서 부모역할을 재정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혼한 부모를 위한 자녀양육지식과 기술의 교육이 매우 필요하다(Frieman et al, 1994).

이와 같은 필요성 때문에 서구에서는 이혼가정의 아동들이 적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통해 개입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는 법원이나 법률상담소 등의 자료를 토대로 기술적 통계와 분석방법에 의존하여 이혼과 관련된 실태연구들이 대부분이며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이어서 이혼가정의 아동에 대한 관심은 매우 결여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것은 그동안 이혼에 대해 크게 관심이 없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때문에 대상자를 찾기가 어렵고 특히 이혼가정의 아동에게 개입하기 위해서는 학교라는 관문을 뛰어넘어야만 한다는 장애가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런 이유로 이혼가정의 아동의 문제에 대해서는 문헌연구조차 매우 부족할 실정이다.

그러나 이혼으로 인한 한부모가정이 크게 증가하고 있고 그로 인한 아동 및 청소년의 문제가 심각한 점을 고려할 때 예방적이고 치료적인 차원에서 이혼가정의 아동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한부모로서 어떻게 부모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즉, 이혼자들이 가장 큰 애로점으로 호소하고 있는 자녀의 문제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고, 또 아동에 대한 접근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이혼가정 아동의 적응을 매개하는 중요한 변인인 이혼 부모를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II. 선행연구

1. 이혼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

1) 아동의 연령에 따른 이혼의 영향

이혼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은 아동의 연령, 성별, 가족구조, 이혼원인 등에 따라 조금씩 다르는데,²⁾ 이중 아동의 연령은 아동의 적응 전반에 매우 중요하게 작용한다(Kurdek et al, 1981;

Palosaari & Aro, 1994). 그것은 아동의 연령이 높을수록 사건을 통제할 수 있게 되고 또 부모의 이혼을 해석할 수 있는 지식 또한 증가하게 되며 결과적으로 부모의 이혼에 대한 결정을 자신과 분리하여 이해할 수 있으나 연령이 낮은 경우는 그와 같은 이해가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혼가정 아동의 적응을 위해서는 부모의 이혼사실을 연령에 적합하게 설명함으로써 수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혼의 영향은 아동의 연령이 낮을수록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전학령기는 부모의 이혼으로 인해 가장 고통받은 시기라 할 수 있다.³⁾ 이 시기는 부모의 이혼이 자신의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부모의 말을 이해할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아동들은 부모의 이혼을 자신을 유기할 가능성이 있는 사건으로 인식한다. 즉, 한 부모가 집을 나간 사건을 집에 남아있는 부모가 내쫓은 것이라고 인식하고 자신도 유기될 수 있다는 두려움과 무력감을 느끼며 심각한 경우에는 급성적인 분리불안감을 느낀다. 이와 같은 부정적인 영향은 이혼 이후 약 2년 동안 지속되는 경향이 있으며 때로는 이혼초기에 부정적인 현상을 보이지 않았던 아동들에게서도 이와 같은 현상이 나타나거나 혹은 문제가 악화되는 경향이 있다(Wallerstein, 1984).

학령기 역시 부모의 이혼으로 인한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시기인데, 이 시기에는 아동들이 우울과 불안, 분노, 그리움의 감정을 나타낸다. 학령전기의 시기에는 지금까지 생활해왔던 생활양식이 변화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그 대처방식으로서 부모의 재결합에 대한 환상을 갖게 된다. 또 생활의 변화를 가져온 원인이 현재 함께 살고 있는 부모 때문이라고 생각하면서 신체적 보호에 대한 의존을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경제적 정서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자신에 대해 분노를 느끼고 이혼한 부모에 대해 창피하게 생각한다(Wallerstein & Kelly, 1980) 그러므로 이 시기에 부모가 이혼을 하는 경우는 자녀들의 불안감을 감소시키기 위해 이혼의 원인과 내용,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변화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사춘기에 부모가 이혼할 경우 부모의 이혼에 대한 심리적인 고통감과 상실감이 크지만 그 감정을 잘 나타내지 않는다. 또 부모에 대한 배신감과 함께 자신이 그 상황을 어떻게 할 수 없다는 현실에 대한 무능력감, 그리고 자신의 장래에 대한 불안감을 느낀다. 이런 이유로 공격성을

2) 대부분의 이혼자들은 이와 같은 차별성을 인식하지 못하며, 이혼사실 조차 자녀들에게 설명하려고 하지 않는다. 이것은 곧 이혼에 대한 자녀들의 감정을 표현하고 환기시킬 수 있는 기회조차 제공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며, 이런 환경은 이혼가정 아동의 안전에 대한 두려움, 부모에 대한 불신, 미래에 대한 암담함 등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이것은 자녀에게 이혼사실을 알리는 것에 대한 지식이나 대응전략이 부족한 것과 관련이 있다.

3) Demo & Acock(1988)은 부모의 이혼으로 인한 영향은 시간이 흐르면서 감소되지만, 일반적으로 가장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시기는 학령기이고 그 다음 전학령기라고 하였다.

표출하기도 하지만, 대체적으로는 용기와 희망을 상실하는 경향을 보인다. 그리고 부모의 행동을 도덕적 견지에서 판단하게 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부모를 자신이 보호해야 한다는 인식을 갖기도 한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볼 때 부모의 이혼에 대해서는 슬픔과 죄의식, 분노감을 갖는다 (Wallerstein & Kelly, 1980).

장기적으로 부모의 이혼은 자녀들이 성인이 되어 부모의 역할에 가치를 부여하는 방식과 그 역할에 적응하는 방법에 영향을 미친다. Booth & Brikerhoff(1984)에 따르면, 남성과 여성 모두 이혼가정에서 성장한 경우 더 이혼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은 부모의 이혼에 대한 경험이 이성과의 관계에 대한 존중심과 장기적인 친밀관계에 대한 유대를 감소시키고 결혼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갖게 하기 때문이다. 심각한 경우에는 결혼의 가치에 의문을 갖게되고 특정한 배우자뿐 아니라 결혼제도까지 거부하게 되며, 결혼한 이후에도 결혼에 대한 책임을 공유하고 싶어하지 않는다. 즉, 부모의 이혼경험이 자녀들의 주의깊은 결혼선택을 방해하고 또 이혼이 불행한 결혼을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이라는 생각을 갖도록 하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이들은 결혼의 성공율에 대한 기대가 낮으며 그 결과 결혼생활에 관심을 덜 기울이거나 혹은 시간적 정서적인 투자를 덜 하는 경향이 있다.

2) 아동의 성별과 형제순위에 따른 이혼의 영향

일반적으로 이혼의 영향은 남아에게 더 부정적이며(Kurdek & Berg, 1987), 특히 동성의 부모가 부재한 경우 더욱 심각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것은 남아에 대한 사회적 기대가 더 큰 반면 사회적 지원은 더 적고, 성역할 동일시 대상이 부재하게 되므로 인식과 도덕의 발달, 자기통제감의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또 여아는 부모의 이혼으로 인한 심리적 문제들을 우울이나 무기력 등과 같은 내향화된 행동의 형태로 표출하지만 남아의 경우는 외향화된 행동으로 표출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이혼은 남아보다 여아에게 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이혼가정의 경우 부모가 여아에게 더 거부적인 태도를 취하는 경향이 있었으며, 특히 어머니와 이별한 여아는 동일시 대상의 상실이라는 문제 이외에 미래에 부모가 자신을 버릴 것이라는 유기에 대한 불안감을 크게 느끼고 있었다 (황옥자, 1980).

한편, 형제순위와 관련하여 Mackinnon은 남아의 경우 더 공격적이기 때문에 이혼가정에서 남아가 첫째일 때 둘째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은 더욱 심각하다고 하였다. 특히 동성의 남아형제가 있는 경우보다 남아와 여아의 구성으로 이루어진 형제관계에서 더 부정성이 많이 나타났

는데, 이것은 남편과 부인의 구조와 동일한 구조일뿐 만아니라 양자간의 갈등적인 관계를 모델링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혼가정에서 장남이 있는 경우 불순응 혹은 부정적인 상호작용과 같은 이인관계의 취약성 때문에 여아가 학대적인 상황에 놓이게 될 가능성이 있다.

3) 심리사회적, 신체적인 반응

먼저 심리적인 면에서 아동들은 우울과 불안을 경험하며 자신에 대한 평가가 낮아지면서 대인관계에서 자신을 철회하는 경향이 있다. 동료관계에서 일반가정의 아동보다 사회성이 부족하며, 친구가 적고 친구와 시간을 덜 보내고 함께하는 활동에 덜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소녀들은 이성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경험하였으며, 부모의 갈등이 증가할 때 데이트활동이 증가되는 경향이 있다.

이와 같이 이혼이 아동에게 미치는 심리적인 영향은 아동들의 행동변화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예를 들어 전학령기 아동의 상실과 박탈감은 수면장애, 섭식장애 신체적 발달장애로 나타날 수 있으며, 학령기 아동의 자신의 운명에 대한 걱정은 건강에 집착하거나 학교성적이 떨어지는 형식으로 나타날 수 있다. 또 사춘기 자녀들의 불안정감은 반사회적이고 비행적인 행동, 조속한 성활동, 과도하게 열광적인 사회생활로 표출되기도 한다.

행동적인 측면에서 이혼가정 소녀들은 일반가정의 소녀들보다 비행행동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조부모나 다른 성인이 있는 경우는 비행율이 낮아졌으며, 아동이 적응해 가고 부모의 아동에 대한 태도가 일관적일 때 감소되는 경향이 있다. 또 사회적 측면에서 아동들은 사회적 교류의 어려움을 경험하는데, Hetherington과 동료들의 연구(1978)에서 부모가 이혼한 지 1년된 소년들은 정상가정의 소년들보다 높은 수준의 반대행동, 낮은수준의 전사회적 행동을 보였고, 2년 후에는 전보다 나아지긴 했으나 다른 아이들과 노는 시간이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학업과 관련하여 읽기, 철자, 수학 등의 영역에서 낮은 편으로 나타났으며, 교사는 학업성취, 독립적인 학습능력이 낮고, 지적 의존성이 있으며, 실패불안, 비반응성, 부적절한 말, 부주의 등의 특징이 있었다고 보고하였다.

2. 아동의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부모의 이혼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이 몇 가지 요인에 따라 상이한 것처럼 아동의 적응 역시 몇가지 매개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일반적으로 아동의 적응은 아동의 성별이나 기질,

발달단계와 같은 특성, 양육부모의 적응상태, 비양육 부모와의 관계, 사회적 지지망, 친구, 부모의 재혼여부, 부모의 갈등정도, 양육권부모의 양육방식 등의 영향을 받는다(정현숙, 1993). 즉, 아동이 어리고 따라서 부모가 상대적으로 어리거나 경제적 자원이 제한되었거나 또 지리적인 이동을 하게 될 경우에는 아동의 적응에 더 부정적일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그러나 Hodge(1986)에 따르면, 아동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이혼이라는 사건 자체이기 보다는 관련된 여러 가지 요인들이 상호작용하거나 축적된 것이며 특히 이혼 이후의 생활의 질, 일상생활에서 나타나는 스트레스 등이 더 중요하다. 부모간의 지속적인 관계, 부모의 자녀 양육방식, 부모의 정신건강, 생활양식의 변화, 아동의 성, 양육부모의 성, 아동의 능력 등을 포함하는 환경적인 변화가 아동의 적응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다.

이혼 이후 부모간의 지속적인 관계가 협조적이고 상호지지적이라면 위기를 잠재하고 있는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다. 그러나 사실 상당수의 이혼자들이 상대배우자에 대한 적의감이나 갈등을 해결하지 못한 채 이혼하기 때문에 그 분노감이 배우자간의 상호작용에서 긴장스런 분위기를 조성하고 이것은 다시 아동을 불편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동의 적응에 부정적이다. Long과 동료들(1988)은 이혼 후 가족기능이 아동의 적응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연구한 결과 이혼가정의 아동들이 이혼초기에 높은 수준의 불안과 낮은 학업성취를 보였지만, 이혼이후 부모의 갈등이 남아있는 아동들만 그러하다고 하였으며, Hetherington과 동료들의 연구(1982)에서도 이혼후 2년동안 부모간의 갈등이 계속된 가정의 아동들은 다른 아동들보다 공격적인 행동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Demo & Acock(1988)은 부모의 갈등수준이 낮을 때 아동의 적응이 더 용이해졌다고 하였으며, 이와 같은 가족갈등은 이혼의 영향을 중재하는데서 아동의 사회적 발달, 인지적 기술, 정서적 안정의 많은 문제에 기여하고 또 이 영향은 이혼 이후에도 오랫동안 지속된다고 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에 비추어볼 때 부모의 갈등은 이혼가정 아동의 적응을 예측할 수 있는 주요한 변수이다. 그러므로 아동의 적응을 원조하기 위해서 부모의 갈등수준을 낮추고 부모의 이혼에 대한 아동의 부정적인 감정을 감소시키기 위한 전문적인 실천이 매우 필요하다.

부모의 자녀양육과 관련하여, Health와 Cavanaugh(1993)는 이혼모의 성역할 이데올로기와 통제소재가 아동을 훈육하는 방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연구한 결과 한부모가정에서 부모의 신념은 아동의 발달과 이혼에 대한 적응과 연관된다고 하였다. 즉, 부모의 양육스타일과 훈육방식이 아동의 행동문제의 발달과 연관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혼한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성숙한 행동을 요구하지 않거나 비밀관적이고 아동을 통제할 때도 덜 효과적일 뿐 아니라 이혼

전보다 아동을 덜 모니터 하는 경향이 있다(Hetherington, 1982). 또 이혼후 부모들의 아동양육 시간이 감소되고 감독이 부족하게 되며 자녀와 동정적인 관계가 만들어져 위계가 부족해지는 경향이 있다. 그러므로 가족은 덜 따스한 분위기가 되고 덜 조직화되며 덜 지지적이고 통제가 부족해지게 된다. 이것은 아동의 중요한 자원인 가족이 상실됨을 의미하는 것이다. 실제로 부모와 자녀간의 관계가 빈약해져서 이혼 이후 어머니와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친밀감이 감소했다고 보고한 경우가 18%였으며, 아버지와는 34%에 이르렀다(Booth & Brikerboff, 1984). 이와 같은 현상은 우리나라에서도 발견되는데, 성정현의 연구(2000)에서 저소득의 이혼모를 대상으로 이혼 이후 자녀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알아본 결과 아동들이 불안해졌다가 35.1%, 공격적이 되었다가 34.6%, 성적이 떨어졌다가 22.5%, 어머니와의 관계가 나빠졌다고 응답한 경우가 13.9%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이혼 이후 부모들의 자녀양육 방식이 변화되고 관계가 나빠지는 것은 대부분 양육자가 이혼 이후 새로 담당하게된 편부모로서의 역할에 적응하는데서의 어려움, 경제적 압력, 가사 이외의 경제적 활동에 대한 부담, 자녀양육 및 의사소통과 훈육의 문제, 그리고 이혼에 대한 사회적 인식으로 인한 스트레스, 전배우자에 대한 갈등 등을 해결하지 못하고 그것을 아동에게 분노로 대치하기 때문이다(Fine et al., 1983).

그러므로 이혼가정 아동들의 적응을 원조하기 위해서는 먼저 부모들이 자신들의 심리사회적 문제와 부모역할에 대해 다시 조명해볼 수 있도록 원조하고 아동의 개인적인 문제해결능력뿐 아니라 이혼에 대한 아동의 분노감을 확인하고 그것을 언어로 표현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기술과 자원, 부모로서의 책임감, 일관적인 양육태도,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차원에서 이혼과정에 노출되는 아동을 도와줄 수 있는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그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3. 기존의 부모교육프로그램

서구에서는 이혼율이 증가하면서 이혼자들을 위한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이혼을 경험한 가족들의 적응과 관련된 집단프로그램 역시 같이 증가해왔다. 이혼을 경험한 가족을 대상으로 처음 부모교육집단을 실시한 Bloom과 동료들(1982)은 이혼과 관련된 문헌에서 나타난 스트레스 요인들을 근거로 약 6개월간의 프로그램을 실시한 결과, 대상자들이 문제를 다룰 수 있는 능력이 증가하면서 심리사회적 문제가 감소하고 특히 부모들이 심리적으로 건강할 경우 이혼의 어려

움에도 더 탄력적으로 대처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Moore, 1998 재인용). Breismeister & Schaefer(1998)는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어머니들에게 긍정적인 훈육방법과 경청방법 등을 교육하고 자녀와의 관계의 변화를 살펴본 결과 모자관계의 향상과 부모의 이혼과 관련된 자녀들의 부정적인 사건의 감소라는 결과가 나타났음을 제시하면서 부모들이 자신의 부모역할에 자신감을 갖는 것이 부모-자녀의 체계에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부모의 이혼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을 매개하는 요인으로서 부모 자신의 요소뿐 아니라 부모역할 방식이 매우 중요함을 시사하는 것이다(Bluestone et al, 1999; Wolchik et al, 1993). 또 부모에게 이혼, 아동의 이혼에 대한 대처와 반응, 적응요인 등에 대해 교육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이혼의 부정적인 영향을 예방하는데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부모들을 세력화하는 것이 유의미함을 증명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서구에서 이혼가정의 아동을 돕기 위해 개발된 기존의 개입프로그램중 대다수는 아동 혹은 부모들의 지지집단에 초점을 맞추거나 학교를 기반으로 한 프로그램들로 대별된다. 이중 아동을 대상으로 한 집단프로그램은 아동의 인지, 정서, 행동적인 문제를 다루었을 때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Buehler et al., 1992), 부모를 대상으로 한 경우는 자녀양육기술과 부모와 자녀간의 관계에 관한 교육프로그램이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Shifflett, 1997).

후자의 경우 내용과 구성은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미국 각주의 법원의 50%이상이 이혼하는 부모들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할 정도로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으며(Geasler & Blaisure, 1998),⁴⁾ 자녀양육과 자녀와의 관계에 대한 주제를 다루면서 이혼한 부모의 사회심리적인 문제를 포함시켜 부모 자신의 심리치료를 유도하고 그것이 자녀양육 및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시키고 아동의 적응을 원조하도록 하는 것에 초점을 둔 것부터 이혼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 및 아동을 양육하는 기술에 더 초점을 둔 것까지 다양한데 전자보다는 후자가 좀더 시간 제한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예로 COSD(The Children of Separation and Divorce)를 들 수 있다.

COSD는 미국의 Maryland 외 여러 지역에서⁵⁾ 10여년동안 부모와 아동을 위한 치료집단을 실시해오는 과정에서 부모들이 아동이 경험하는 것을 이해하면 아동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사

4) 아동의 복리를 우선시하는 원칙하에서 이혼자들에게 법원에서 제공하는 교육프로그램에 비자발적으로라도 참석하도록 하고 있다.

5) Howard와 Montgomery의 COSD는 아동, 성인, 가족, 별거 및 이혼, 재혼에 대한 적응과 관련된 임상서비스를 제공하는 포괄적인 자원을 가진 센터로서에서 약 15년동안 7000여 가족에게 서비스를 제공해왔는데, 이 기관 역시 부모역할교육 세미나와 부모역할세미나로 구분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실을 발견하여 개발된 세미나이다. 이 세미나는 아동의 욕구에 초점을 둔 부모교육 프로그램으로 각 세션마다 3시간이 소요되는 2회세션으로 구성된 단기 프로그램과(Frieman et al., 1994). 아동의 욕구에 초점을 두고 아동의 욕구가 어떻게 전개되고 변화되는지를 이해하는데 초점을 두고 10회로 구성된 장기프로그램으로 구분하여 운영되고 있다(<http://www.divorceabc.com>). 이 프로그램에 참석한 부모들의 부모역할에 대한 태도를 조사한 결과 부모역할의 내용면에서 매우 긍정적인 결과가 나타났는데 구체적으로는 이혼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과 아동들이 그 영향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전략을 개발하는데 매우 도움이 되었다고 보고하고 있다.

단기 프로그램의 또 다른 예로서 Children First Program은 양부모를 대상으로 설계된 프로그램으로써 2회에 걸쳐 비디오에 나타난 부적응적이고 부적절한 상호작용에 대해 토론하고 더 적합한 부모의 행동을 동일시하도록 하는데 초점을 둔 법원의 교육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평가하기 위해 프로그램실시 전후와 3개월 이후에 평가해본 결과 이혼후 갈등정도가 높은 부부에게 매우 효과적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Kramer & Washoe, 1993). 또 Helping Children Succeed after Divorce는 100명-150명의 이혼부모를 대상으로 1시간 30분-2시간에 걸쳐 슬라이드, 핸드북 자료 등을 활용하여 세미나를 한 결과 단기프로그램이지만 매우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압축적이고 흥미로운 형태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핸드북을 활용함으로써 단기의 집중적인 심리교육적 이혼프로그램의 바람직성을 지지해준 프로그램으로 평가받고 있다(Moore, 1998 재인용).

보다 장기적인 프로그램의 예로서 ODP(Orientation for Divorcing Parents)는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일종의 예방적인 프로그램으로서 약 5회의 세션으로 구성되어 있다. Buehler(1992) 등은 짧은 강의, 소책자자료, 역할극, 소집단활동 등을 다양하게 활용하였는데 그 결과 프로그램 참여자들의 매우 높은 만족이라는 결과가 도출되었으며, 한계로는 삽화(vignettes), 숙제 등과 같은 다양한 활동의 필요성과 함께 자녀양육 기술 및 부모-자녀의 관계에 대한 기술교육에 대한 요청이 있었다.

마지막으로 Kids First Seminar: Helping Children Cope With Family Transitions은 부모들이 이혼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지식이 있다면 가족이 재조직될 때 잘 준비할 수 있고 또 아동들을 도울 수 있을 것이라는 전제하에 아동의 시각에서 이혼의 경험을 탐색하는데 초점을 두고 법원에서 실시된 프로그램으로서 지식을 얻고 특히 부부간의 행동을 관리하는데 매우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Shifflett, 1997).

<표 1> 기존의 부모교육 프로그램들

프로그램	내용	회수	대상	실천기법,도구
COSD The Children of Separation and Divorce	단기	2	부모	부모용 매뉴얼, 강의,소집단토론, modelin, didactic, 비디오
	장기	10	부모	부모용 매뉴얼, 강의, 소집단 토론, modeling, didactic, 실험적 기법들, 비디오
Children First Program	부모간의 관계를 개선하고 아동의 욕구에 좀더 민감해지기, 부모의 행동이 아동에게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가를 이해하기	2(각90분)	부모	비디오, 역할극, 토론, 의사소통 기법
HelpingChildren Succeed after Divorce	아동들의 적응을 위해 건설적인 방법으로 이혼하기 성인과 아동의 이혼과 관련된 경험을 알기, 공동양육관계의 수립하기 문제해결기술을 학습하기	1 100명이상 (1시간반~2시간)	양부모	슬라이드, 핸드북 자료, 강의, 비디오
ODP(Orientation for Divorcing Parents)	부모의 적응문제-정서적, 인지적 반응, 슬픔의 싸이클/아동의 반응과 부모가 대처하는 방법/이혼의 법적인 측면/전배우자와의 관계 및 부모와 자녀간의 관계	5	부모	짧은 강의, 소책자자료, 역할극, 소집단활동

이상에서 살펴본 프로그램들의 특징을 살펴보면, 우선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내용과 형태, 전략에 있어서 조금씩 차별성이 있기는 하지만 프로그램마다 아동의 발달단계에 따른 이혼의 영향, 아동에게 이혼을 설명하고 이혼에 대한 아동의 반응에 대처하기, 그리고 양부모의 공동자녀 양육방법을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 둘째, 대부분 단기의 구조화된 프로그램으로 진행되는 경향이 있으며, 이와 같은 단기 집단은 대부분 강의와 비디오, OHP, 집단의 내용을 요약한 자료, 소집단토론 등과 같은 전략들을 활용하고 있다. 이것은 부모를 대상으로

한 집단에서는 짧은 이인토론, 집단토론, 기술훈련, 강의 등으로 아주 구조화된 프로그램이 효과적이라는 연구들과 일치하는 것이다(Geasler & Blaisurem 1998). 셋째, 이와 같은 단기집단들은 대부분 법원에서 명령된 프로그램들인 경우가 많다. 이것은 우리나라와는 다른 이혼이 하나의 보편적인 현상으로 인식되고 있는 사회문화적 환경과 관련되는 것이지만, 앞으로 이혼이 증가할 수 밖에 없음을 고려할 때 공적인 영역이든 혹은 사적인 민간단체에서이든 이와 같은 예방적, 치료적인 프로그램들은 매우 필요하다. 넷째, 단기의 프로그램이지만 효과성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물론 효과성은 부부간 갈등의 정도, 프로그램에 참석한 시기, 내용과 교수전략 등에 따라 변동이 있지만, 이혼 직후에 프로그램에 가입했을수록 부부간 갈등수준이 낮아지고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이 덜 부정적인 것(Arbutnot et al, 1994; Geasler & Blaisure, 1998 재인용)을 고려할 때 짧은 시간안에 보다 많은 사람이 교육프로그램에 참석하도록 유도하기에는 매우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Ⅲ. 이혼가정 아동의 적응을 위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구성

선행연구뿐 아니라 이혼여성들과의 직접적인 면접을 통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문제는 자녀에게 이혼을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가?, 자녀와 수년간 생활을 했지만 아동을 전배우자에게 다시 보내고 싶을 때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리고 경제적 문제를 충족시켜주지 못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하는 문제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프로그램을 통해 세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제공하기 위해 프로그램의 목적을 이혼을 경험한 당사자들이 이혼과 관련된 다양한 측면들(이혼의 6단계)를 이해하고 자녀의 연령별 이혼의 영향과 대처방식을 학습하도록 원조함으로써 변화된 가족구조에 적합한 방식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훈육하도록 돕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부모교육 프로그램들은 일종의 정보를 제공하는 실천(informed practice)의 형태를 띠는 것이 바람직하며, 프로그램에서는 이혼과 관련된 지식들, 정상적 발달의 기본적인 과정들, 특별한 위기와 관련된 이슈들을 다룰 필요가 있다(Stolberg1988: Buehler et al., 1992 재인용).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

- ① 이혼의 다양한 측면을 이해하기(법적, 경제적, 사회적, 정서적, 정신적, 부모역할의 이혼)
- ② 아동의 발달단계에 따른 이혼의 영향과 그것에 반응하는 방법을 이해하기
- ③ 아동이 부모들간의 갈등상황에 놓이는 것을 피하는 방법을 배우기

④ 아동이 이혼에 적응할수 있도록 지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기술들을 공유하기

<표 2> 이혼가정 아동의 적응을 위한 부모교육 프로그램

회기	목표	내용	실천방법
1	이혼의 6단계를 이해하기 아동의 발달단계별 이혼의 영향을 이해하기 아동에게 이혼을 설명하기	부모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오리엔테이션 정서적 이혼, 공동부모역할의 이혼, 법적 이혼, 경제적 이혼, 공동체이혼, 정신적 이혼 유아기, 학령전기, 학령전후기, 사춘기-두려움, 퇴행, 마술적 사고/슬픔, 책임감, 두려움의 대치, 환상/분노,비난, 연맹/미래에 대한 불안, 냉소적, 행동장애, 경계적 혼돈(boundary confusion) 아동에게 이혼을 설명하기 위한 4가지 원칙들 - 아동의 용어로 정직하고 직접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계획세우기, 아동의 감정에 주의를 기울이기, 아동의 진술과 질문들속에 내재된 문제를 이해하기, 이혼후의 변화를 생활속에서 예로들어 설명하기	강의, 소책자 활용, 소집단 토론, 비디오, 아동문제체크리스트, 부모가 인식하는 아동의 적응정도 작성, modeling
2	각 발달단계에 따라 부모가 아동을 돕는 방법을 이해하기 아동이 이혼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기술들을 공유하기	이혼가정 아동들의 권리선언 부모들이 해야할 일-일관성을 유지하기,부모의 사랑을 재확인시키기,말할 기회의 제공,집중적인 대화,분노를 인식하기,부모 모두를 사랑하는 것에 대해 허용하기, 정직하게 이야기 하기, 좋은 의사소통기술을 활용하기, 성인의 지지체계를 이용하기 구성원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한부모로서 긍정적인 대처전략을 학습하고 지지망을 형성하기	강의, 소책자 활용, I-Message, 경청기술, 자녀와의 의사소통 기술들 소집단 토론 프로그램을 통해 알게된 지식, 기술에 대한 평가

본 연구에서는 <표 2>에 나타난 바와 같이 2회의 단기세션으로 집단을 구조화하고자 한다. 그 이유는 먼저 이혼여성들중 대부분이 취업상태에 있으면서 또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는 상황 이므로 시간적 제약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또 문제해결집단이 아니라 교육을 중심으로 한 집단이므로 단기집단의 형태로 진행하는 것이 집단프로그램에 참석하는 대상자들에게 시간적으로뿐만 아니라 심리적으로도 부담감을 덜 줄수 있기 때문이다.

집단 프로그램은 교육과 소집단 토론, 질의, 응답, 총평의 형태로 진행하고자 한다. 이혼한 부모들이 자신들이 경험하는 자녀의 문제, 걱정하고 있는 문제 등에 대한 답을 얻고 자신들이 경험하는 문제가 단지 자신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도록 함으로써 안도감을 느끼도록

하기 위해 리더가 이혼 및 이혼가정의 아동에 대한 지식을 교육하고 그 내용에 비추어 소집단에서 각자의 경험을 토론하며, 그 결과를 가지고 함께 질의, 응답하거나 평가하는 시간을 갖는다면 프로그램에 참가한 부모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으리라고 생각된다.

IV. 결론

우리나라에서 이혼을 할 때 혹은 이혼 이후에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문제는 자녀문제이다. 이혼을 생각하고 있는 부모들은 자녀에게 부모의 이혼을 말해야 할지에서부터 이혼이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매우 심각한 고민을 하며, 자녀문제 때문에 이혼을 연기하거나 별거상태로 살아가는 경우도 적지 않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이혼을 생각하고 별거하는 시기부터 부모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은 감소된다. 또 이 시기동안 부모들은 더 불행감을 경험하며 갈등 또한 심화되기 때문에 오히려 부모들의 심리적, 정신적 건강뿐 아니라 자녀들에게 미치는 영향 또한 이혼만큼이나 부정적일 수 있다. 그러므로 이혼에 대한 정확한 지식과 이혼을 알리는 방법, 이혼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 이혼 이후 이혼자 자신이 경험하게 될 문제, 이혼이후 자녀와의 의사소통 방법, 이혼이후 가족구조에 변화에 적응하는 방법 등을 알려주는 것은 미지의 세계인 이혼 이후의 생활에 대한 불안감을 덜어주고, 자녀에 대한 뿌리깊은 죄의식을 감소시키며, 이혼 이후의 생활에 대한 자신감을 더해줄 수 있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또 자녀들이 부모의 이혼에 대해 갖고 있는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제공하도록 교육함으로써 한부모가족에서 경험하는 자녀들의 문제, 그리고 사회적인 차원에서 한부모가정에 대해 갖고 있는 청소년 비행의 가능성에 대한 우려 등을 감소시킬 수 있으며, 민간단체에서 이와 같은 부모교육이 축적된다면 양부모로 이루어진 이세대 가족만이 정상적인 가족이라는 핵가족이데올로기의 벽을 넘어 한부모가정도 정상적인 가정이며, 그 가정에서 자녀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음을 알릴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변화된 가족구조에 적합한 방식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훈육하는 방식과 자녀들과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하는 방식을 포함시킴으로써 가족이 지속적으로 아동들의 지지원이 되고 나아가 이혼의 장기적인 영향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원조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방선욱(1992). 이혼적응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조사연구, 서울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법원행정처(1986-2000). 사법연감, 법원행정처.

성정현(2000). 이혼여성의 자립방안, 한국여성단체연합, 비혼, 사별, 이혼여성의 자립방안.

윤애경(1997). 이혼모 적응과정에 있어 자녀관계에 관한 연구, 대구효성가톨릭대학교

정현숙(1993). "부모의 이혼에 따른 자녀들의 적응", 아동학회지, 제 14권 1호.

한혜경(1993). "한국 이혼부부의 적응과 관련변인에 관한 실증적 연구", 한국가족학연구회, 이혼과 가족문제, 하우.

황옥자(1980). 부모의 이혼이 자녀생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숙명여대 석사학위논문.

Bluestone, C., Tamis-LeMonda, C.S.(1999). Correlates of parenting styles in predominantly working and middle class African-American mother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61:4, pp881-893.

Booth, A. Brikerhoff, D. and Lynn K.(1984). The Impact of Parental Divorce on Courtship,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pp.85-94.

Buehler, C, Betz, P., Ryan, C., Legg, B. H. and Trotter, B. B.(1992). "Description and Evaluation of the Orientation for Divorcing Parents; Implications for Postdivorce Prevention Programs", Family Relations, 41, pp154-162.

Butler, B.O, Mellon, M.W., Stroh, S. E., & Stern, P.,(1995). ATherapeutic Model to Enhance Children's Adjustment to Divorce: A Case Example, Journal of Divorce, 22:3/4, pp77-90.

Demo, D. & Acock, A.(1988). The Impact of Divorce on Children,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Vol 50, 619~648.

Fine,M., Moreland, J. & Schwebel,A.(1983). Long-Term Effects of Divorce on Parent-Child Relationships, Developmental Psychology, 19:5, 703~713.

Felner, R.D., Stolberg, A. and Cowen, E.,(1975). Crisis Events and School Mental Health Referral Patterns of Young Children,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Vol 43, No 3, 305~310.

- Frieman, B. & Garon, R. and Mandell, B.(1994). "Parenting Seminars for Divorcing Parents", Social Work, Vol39, N05.
- Furstenberg, F. & Nord, C.(1985). Parenting Apart: Patterns of Childrearing After Marital Disruption,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1985, 893~904.
- Geasler, M. J. & Blaisure, K. R.(1998). "A Review of Divorce Education Program Materials", Family Relations 47:2, pp167-175.
- Heath, P. A. and Cavanaugh, K.(1993). Divorced mothers' gender role ideology, locus of control and disciplinary patterns. Sex Roles, .29. pp781-793.
- Hethering, E, Cox, M., & Cox, R. (1978). Long-term effects of divorce and remarriage on the adjustment of children,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Psychiatry, 24: 518-530.
- Hodges,W.F(1986). Interventions for Children of Divorce : Custody, Access, and psychotherapy, A Wiley-Interscience Publication, 1986.
- [Http://www.divorceabc.com/breakcyc.htm](http://www.divorceabc.com/breakcyc.htm), "The Children of Separation of Divorce Center, Inc.
- Kalter, N(1977). Children of Divorce in a Outpatient Psychiatric Population,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Vol 47, No 1, 40~51.
- Kramer, L. & Washo, C.(1993). Evaluation of A Court-Mandated Prevention Program for Divorcing Parents:The Children First Program, Family Relations, 42: 179~186.
- Kurdek, L & Berg, B.(1987). Children's Belief About Parental Divorce Scale:Psychometric Characteristics and Concurrent Validity,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Vol55, No5, 712~718.
- Kurdek, L., Blisk, D. and Siesky, A.(1981). Correlates of Childrenn's Long Term Adjustment to Their Parents' Divorce, Developmental Psychology, Vol 17, No 5, 565~579.
- Long, N., Slater, E.,Forehead, R., and Falber, R.(1988). Continued high or reduced interparental conflict following divorce,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6, p457-469.
- Moore, J.M.(1998). The effectiveness of a court-mandated parenting class for couples seeking a dissolution of marriage, Ph. D. Dissertation, The Univ. of Iowa.
- Palosaari, U. & Aro,H.(1994). Effect of Timing of Parental Divorce on the Vulnerability of Children to Depression in Young Adulthood, Adolescence, 29:15.
- Shifflett, K.D.(1997). A Program for Educating Parents about the Effects of Divorce and Conflict on Children, West Virginia Univ.

- Stahl, P.M.(2000). Parenting after divorce; A Guide to Resolving Conflicts and Meeting Your Children's Needs, Impact Publishers, Inc.
- Wallerstein, J. S & Kelly, J. B.(1980). Surviving the Breakup:How Children and Parents Cope with Divorce, Basic Books, Inc., New York.
- Wallerstein, J.S(1984). Childrenn of Divorce:Preliminary Report of a Ten-Year Follow-Up of Young Children,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Vol 54(3).
- Wallerstein,J.S(1984). Children of Divorce:The Psychological Tasks of the Child,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Vol 53(2).
- Wolchik, S.A. & West, S.G. Westover, S., Dandler, I. N., Martin, A., Lustig, J., Tein, J, Fisher, J., (1993). "The Children of Divorce Parenting Intervention: Outcome Evaluation of an Empirically Based Program", Americam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21:3, pp293-331.